

화순교육청, 포스트 코로나시대 '화순교육의 길'을 묻다

2022년 교육계획 수립 위한 권역별 소토론회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으로 교육자치역량 강화

화순교육지원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교육의 본질 회복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다. 화순교육지원청은 '인구절벽시대, 화순교육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2022 화순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권역별

로 총 4차례에 걸쳐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학생수 급감에 따른 화순교육의 나아갈 방향 △화순교육에 바라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 △지역 학생들의 놀이문화 활성화 △창의·융합교육 방안 △안전한 학교 등을 주제로 퍼실리테이터(촉진자) 중심의 원탁토론이 이뤄진다. 세부 토론 일정은 26일 화순오성

초 강당에서 열리는 읍면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 28일 서부권역(도곡초 강당), 11월 2일 남부권역(한천초 강당), 11월 4일 북부권역(동복초 강당) 등이다. 화순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업으로 자치역량을 높이고, 지역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혁신 정책에 반영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면서 지역민들 누구나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 주체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고,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소통과

공감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주인의식 함양은 물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지원체제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순교육지원청 이현희 교육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 같은 당면 문제들의 해결점을 찾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화순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데 교육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기자



진도Wee센터, 찾아가는 토크 상담소 운영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포) Wee센터에서는, 찾아가는 토크(Talk)

주1회 전문상담(교)사 상주

Talk)상담소를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토크(Talk Talk)상담소는 관내 Wee클래스 미배치교를 대상으로, 주 1회 오전 동안 신청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교)사가 상주하는 프로그램이다. 찾아가는 토크(Talk Talk)상담소는 학생들의 개인상담 친구상담·진로상담·교직원자문 등 Wee클래스의 부재를 담당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상담에 대한 방어감이 감소되면서 자연

스럽게 라포를 쌓을 수 있고, 교직원들은 학교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학생들의 위기상황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협의도 가능하여 학교구성원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군내중학교 학생생활안전부장(김OO)은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 듯싶어 공문이 오자마자 바로 신청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내년에도 꼭 이 프로그램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진도=조상용기자

완도 넓도초, 노화중립도분교장 통합 학교 흡연예방 교육



완도넓도초등학교(교장 강진순)는 초·중 통합 흡연예방교육주간을 선정하여 학기당 1회씩 운영하고 있다. 지난 1학기에는 흡연예방 굿즈 제작을 목표로 초·중 통합 흡연예방교육

학기당 1회씩 운영

주간을 선정하였다. 표어,캐릭터 부분에서 각각 작품을 만들고 이 중 수상작을 선정하여 마스크 스트랩, 일회용 마스크 제작에 이용되어 실생활 속 흡연예방의 마음을 다지는 활동을 하였다. 2학기에는 '함께하는 흡연예방'이라는 주제로 초·중 통합 흡연예방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초·중 연합 학생회와 의논하여 캠페인의 시기, 방법을 결정했다. '실천하는 흡연예방'이라는 주제에 걸맞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아칭 캠페인의 방식으로 선정

이 되었다. 학생들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활동을 전개했다. 담배모형편지백을 때리고, 각자 만든 담배모형을 가위로 자르는 활동을 통해 담배의 유해함과 이를 멀리해야겠다는 다짐을 몸으로 느꼈다. 1학기 때 만든 표어를 함께 외치면서 흡연예방의 정신을 깊이 새겼다. 처음엔 '초·중 통합'이라는 점이 학생들에게도 어색했지만, 어느덧 '함께한다.'라는 생각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식되고 있다. 앞으로도 여러 좋은 활동들을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완도=이민혁기자

해남교육청, 특색사업 소(통)나(눔)기(쁨) 프로그램 운영

초·중학교 각 3개교 대상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천) Wee센터는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정신건강 도모를 위해 LCS(Lim's Character Style Inventory)성격검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초·중학교 각 3개교(육전초, 서정초, 마산초, 화원중, 북평중, 산이중)를 대상으로 지난 20일(수), 25일(월), 27일(수) 3일 동안 오전, 오후 학교로 찾아가는 특색사업 드림하이 프로젝트 소(통), 나(눔), 기(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색사업은 LCSI 성격검사 결

과를 토대로 학생들은 자신의 현재 심리적인 상황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으며, 집단토의, 토론, 발표 활동으로 자신과 학급 친구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대인관계 회복 및 자기 성장을 조력하였으며, 자기 및 타인에 대한 공감적인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어 조영천 교육장은 "바쁜 일정에도 학생들의 보다 나은 학교생활과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협조해 준 교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깊은 유대감을 가질 수 있길 바라며, 학생들의 행복



한 학교생활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본 프로그램을 진행한 해남교육지원청 Wee센터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상주 순회상담, 개인 심리평가, 특색사업, 자문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무안중, 무안 중심마을학교 '토브'와 학생 쉼터 만들어

'무지개' 협의체 구성

무안중학교(교장 정한성)가 무안의 15개 마을학교중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정한 무안군 중심마을학교인 '토브'와 함께 '무지개' 사업의 하나로 학생 쉼터를 만들어 설치했다. 마을학교인 '토브'는 무안중의 학생회를 중심으로 '무지개'라는 협의체를 구성했다.'무지개'는 '무안중의 지역 개선'의 약칭인데, 학생들이 지역의 문제를 찾아 개선하여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무안을 만들자는 뜻을 담고 있다. 무지개 회원들은 지역 개선 활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생 쉼터 제작과 학교 주변 벽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 쉼터는 학생들의 안전과 휴식을 위해 만들기로 했다. 교문 앞에 있는 도로가 좁은 편이라 에듀택시나 버스 등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앞서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기



다릴 수 있고, 폭염이나 눈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 쉼터는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 색깔이 예뻐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